



국내외 사례를 통한 수원시 치매정책의 방향성

요약

□ 9월 21일 ‘치매극복의 날’ 지정

- 치매환자의 계속적 증가와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하여 WHO(세계보건기구)와 ADI(국제알츠하이머협회)는 1995년, 우리나라는 2011년 「치매관리법」 제정을 통해 매년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지정

□ 국내·외 치매정책 사례

- 국내에서는 2017년 치매국가책임제를 선포하며 지자체별 치매안심센터, 차별화된 치매안심하우스 등 지역특성화 정책 시행
- 영국을 비롯한 해외에서는 치매를 국가 아젠다로 설정, 병원보호가 아닌 지역사회 일원으로 함께 거주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 시행

□ 치매 관련 수원시 현황 및 지원정책

- 2022년 기준 수원시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치매 유병률 9.88%, 전국(10.38%)과 경기도 평균(10.11%)보다는 낮고, 2019년을 기점으로 소폭 감소 추세
- 수원시는 구별 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며 치매조기검진, 치매환자 및 가족지원, 치매예방서비스 등 제공

□ 수원시 치매정책의 방향성

- 예방과 조기발견의 강화
 - ⇒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인식도를 높일 수 있는 홍보방법 다변화
 - ⇒ 지역사회 내 기관 연계를 통한 조기검사를 향상
 - ⇒ 초로기 치매(45~50세) 환자에 대한 선도적 개입 필요
- 치매환자와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치매친화도시 조성’
 - ⇒ 우리나라는 치매친화도시를 위한 도입단계로, ‘치매친화도시’의 구체화된 정책 사례는 없음
 - ⇒ 수원은 기초지자체 최초 3개 친화인증도시(아동·여성·고령)의 정책적 가치 지향을 위해 치매환자의 참여와 가족이 원하는 단계적·지역특성형 치매친화도시 환경 조성(수원새빛돌봄 등)
- 치매환자와 가족의 Aging in Place를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강화
 - ⇒ 보건-의료-복지-주거-돌봄-상담서비스로 구성된 통합지원체계 구축
 - ⇒ 수원시장기요양지원센터와 치매안심센터와의 연계 체계 강화
 - ⇒ 의심과정부터 진단, 정보제공, 서비스 연계까지의 통합전달체계 구축

[1] 치매극복의 날 지정

□ 치매환자의 계속적 증가에 따른 치매정책의 중요성 강조

- 출산율 감소와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인구고령화 빠르게 증가
⇒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중은 17.5%(2022년)에서 46.4%(2070년)까지 증가 예측¹⁾
-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노인성 대표 질환인 치매(dementia) 유병률도 동반적 증가
⇒ 2022년 치매 유병률은 10.38%에서 2040년 13.13%, 2070년 19.35%까지 증가 예측²⁾
- 치매는 가족의 정신적·경제적 부담과 의료 등과 관련된 사회적 돌봄비용 발생³⁾
⇒ 우리나라 치매환자 관리비용은 20.7조원(2020년)에서 133.1조원(2060년)까지 증가 추정
- 치매환자 증가에 따른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치매 관련 다양한 정책 시행
⇒ 우리나라의 최초 치매종합관리대책은 2008년 9월 수립, 현재 4차 계획(2021~2025) 시행

□ 치매관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하여 매년 9월 21일 ‘치매극복의 날’로 지정

- 1995년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알츠하이머협회(ADI)는 가족과 사회의 치매환자 돌봄 관련 인식개선을 위하여 9월 21일 치매극복의 날로 지정
- 우리나라는 2011년 8월 4일 제정된 「치매관리법」 제5조(치매극복의 날)에 의거, 치매관리의 중요성과 치매 극복을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지정
- 「치매관리법」 제2조에서는 치매를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 다발성 장애”로 정의
- 치매(어리석을 치(痴), 어리석을 매(呆))의 부정적 의미는 치매에 대한 사회적 편견 유발
⇒ 치매 용어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설문응답자(만 19세 이상 1,200명)의 43.8%는 ‘치매’라는 용어에 대한 거부감 표현⁴⁾
⇒ 2023년 3월 20일 ‘치매관리법’을 ‘뇌인지저하증관리법’으로 변경하고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본문에서 ‘치매’라는 용어를 ‘뇌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한다는 ‘치매관리법 개정안’ 발의

[2] 수원시 치매 관련 현황

□ 수원시, 노인인구의 계속적 증가 예측

- 치매정책의 잠재적 대상자인 노인 인구(만65세 이상) 추계 결과, 2025년 수원시 노인인구는 총 인구의 15.0%, 2030년 19.8%, 2035년 24.2%, 2040년 28.3%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

<수원시 장래 노인인구 추계(2022년~2040년)>

구분	2022년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인구 수(단위: 명)	1,190,964	1,200,095	1,196,392	1,196,745	1,191,201
노인 인구 수(단위: 명)	147,122	179,443	236,633	289,657	337,679
노인인구 비율(단위: %)	12.4	15.0	19.8	24.2	28.3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및 e지방지표 장래인구추계]

1) 통계청,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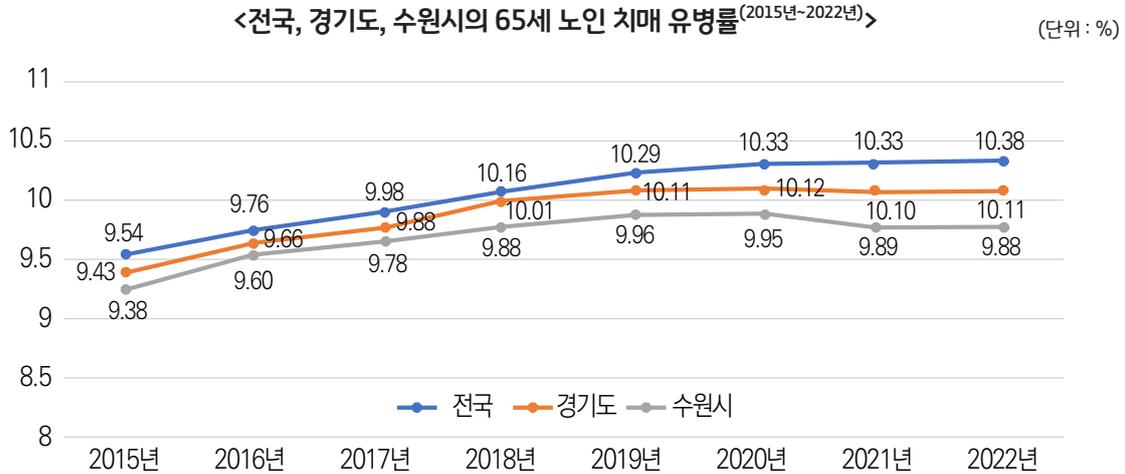
2)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3) 남궁은하, 2022

4) 보건복지부, 2021

□ 수원시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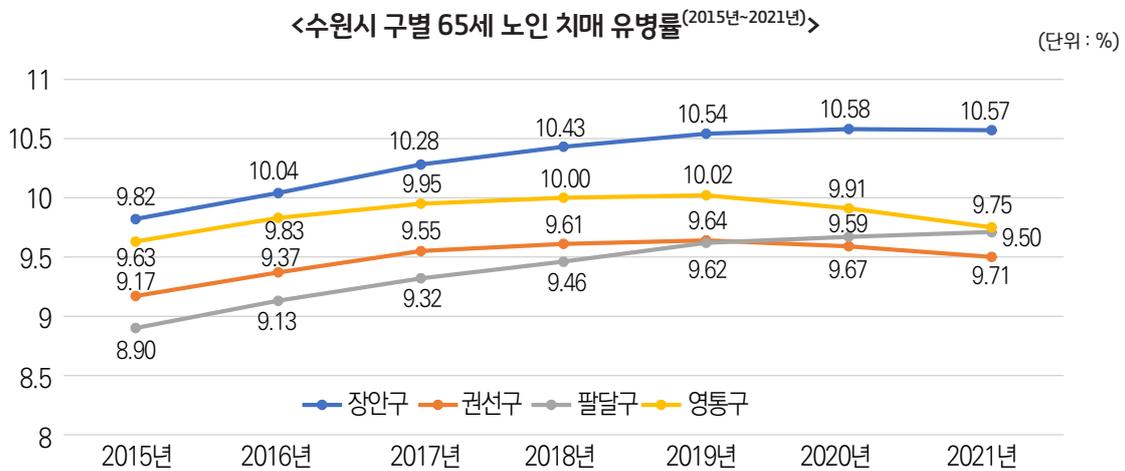
- 2022년 기준, 수원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치매 유병률은 9.88%로 전국(10.38%)과 경기도 평균(10.11%)보다는 낮고, 2019년을 기점으로 소폭 감소 추세



[자료: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 장안구의 치매 유병률은 수원시 평균보다 높고, 4개 구 중 가장 높음

- 수원시 4개 구 중에서는 매년 장안구와 영통구는 수원시 평균 보다 높고, 권선구와 팔달구는 낮은 경향 보임



[주: 구별 2022년 자료 미공개]
[자료: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 치매환자의 중증도는 경도환자가 가장 많음

- 치매환자의 중증도별로 구분하며, 전국과 경기도, 수원시 모두 경도환자의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중등도, 최경도, 중증의 순

[3] 치매 예방 및 지원 관련 해외 사례

□ 영국 - 치매 친화 지역사회(dementia-friendly communities)⁵⁾

- 영국은 세계 최초로 치매를 국가의 아젠다로 설정하였으며, 2012년부터 치매 친화 지역사회(dementia-friendly communities) 시행
 - ⇒ 치매 친화 지역사회란 “치매 환자가 이해존중받고 기여할 수 있는 도시(cities), 타운(towns) 또는 마을(villages)로, 지역주민은 치매에 대해 이해하고, 치매 노인은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기주도적으로 살 수 있는 지역사회” 의미
- 영국의 치매 친화 지역사회 인증 프로그램은 민간이 주도한다는 것이 특징
- 치매 친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8개 분야 선정
 - ⇒ ① 예술, 문화 및 여가, ② 기업 및 상점, ③ 아동·청소년 및 학생, ④ 지역, 비영리, 종교기관, ⑤ 소방, 경찰 등 응급서비스, ⑥ 의료적·사회적 돌봄, ⑦ 주거 환경, ⑧ 대중교통

<알츠하이머협회가 제시한 치매 친화 지역의 10가지 주요 요소>⁶⁾



- 세계 최초 치매 친화도시 마을은 영국의 머더웰(Motherwell)으로, 2012년 치매친화 마을 선언
- 치매 친화마을의 목적은 치매 환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사회 환경 변화를 시도하여 궁극적으로는 치매 환자들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
 - ⇒ 지역사회 내 환경변화는 표지판은 간결하게, 쉽게 피곤에 지치는 노인들을 위한 휴게용 의자 비치, 장애물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 반사되는 바닥 피하기 등과 관련 정책 도입

5) 남궁은하, 2022, 영국의 치매 친화 지역사회 정책. 국제사회보장리뷰, 2022(가을), pp.5-16.

6) 자료: Alzheimer’s Society. (2013). Building dementia-friendly communities: A priority for everyone. http://www.actonalz.org/sites/default/files/documents/Dementia_friendly_communities_full_report.pdf 내용 재구성: 김세진·주하나·남궁은하·이윤경(2021). 치매친화적 지역사회 구축방안 연구. p.126 [그림 4-7] 재인용.

□ 네덜란드 - 세계 최초의 치매마을 ‘호그벡’

- 네덜란드의 호그벡(Hogeweyk) 마을은 요양원이 아닌 마을에서 자유로운 일상을 누리며 행복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고민에서 조성된 가상의 마을
 - ⇒ 치매라는 질병에 초점을 맞춰 의존적 환자로 인식하는 의료적 관점이 아닌 당사자 중심의 활동적 시민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관점으로 접근⁷⁾
 - ⇒ 폐쇄적인 시설에서의 보호를 지양하기 위하여 4,500여 평의 부지 안에 카페와 미용실, 공원, 슈퍼마켓 등 각종 편의시설 조성
 - ⇒ 입주 노인들은 농장에서 채소를 가꾸거나 미술 등 취미생활 향유하며 자유롭게 이동
 - ⇒ 각 상점에 배치된 직원은 실제 상인이 아닌 요양전문 간호사나 간병인 등으로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들의 행동을 살피고 이상행동 시에만 최소한 개입
- 호그벡 역시 거대한 시설보호라는 비판이 있으나 입주한 치매노인에게 프라이버시와 독립성을 제공하는 또 하나의 모델이라는 평가 존재

[4] 치매 예방 및 지원 관련 국내 사례

□ 치매예방 관련 사례

- 부산시는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약을 통해 시니어클럽 일자리어르신 대상 치매조기선별 검사 실시⁽²⁰²²⁾
- 대구치매센터연합회는 도서관 이용 중장년층 대상 치매노인 치매선별검사 무료 실시⁽²⁰²²⁾
- 인천 서구는 치매검사 간편 예약 시스템 ‘치매 플랫폼’ 구축 치매조기발견율 향상 유도⁽²⁰²¹⁾
 - ⇒ 치매추정인구 대비 등록률은 55.6%에서 60.5%로 향상
- 서귀포시는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치매안심센터 분소 운영⁽²⁰²²⁾

□ 인식개선 관련 사례

- 서울 강서구의 경우, 전 세대가 함께하는 치매인식개선 사업을 위하여 치매안심 마을 어린이 공모전, 치매극복 선도학교와 함께하는 연합동아리 운영, UCC 공모전, 치매안심 주민운영단 운영⁽²⁰²²⁾
- 치매안심 사회적 환경조성을 위하여 유튜브 채널 운영 : 광주광역시 서구(치매뉴스, 치매어르신 VLOG 등)

□ 통합사례관리 관련 사례

- 서울 강동구, 사례관리 대상자의 복합적 욕구 및 통합적 관리체계 마련을 위하여 ‘강동구 치매종합 돌봄 안전플랫폼 구축’
- 강원치매센터연합은 퇴원치매 환자가 치매 안심센터에서 등록관리 될 수 있도록 ‘공공병원 퇴원환자 치매안심센터 연계사업’ 진행⁸⁾
- 경남 김해시의 경우, 지역별 담당자 지정을 통한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 마음에서 마음으로’ 시행⁹⁾

7) 고영호 외, 2022

8) 보건복지부·중앙치매센터, 2022

9) 보건복지부·중앙치매센터, 2022

□ 치매친화 환경조성 관련 사례

- 서울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는 전(全) 동을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하기 위하여 ‘으쓱으쓱 우리 동네 프로젝트’ 실시⁽²⁰²²⁾
 - ⇒ 우체국, 경찰서, 모범 운전자회, 마이홈 센터 등 지역사회 협력기관 선정
 - ⇒ 인지건강 디자인(눈에 잘 띄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오감을 자극하는 환경을 만들어 치매 등 인지 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디자인) 조성
 - ⇒ 치매환자들의 사회참여 독려와 지역주민 인식개선을 위하여 치매어르신과 보호자가 재배한 농작물을 초로기치매 환자가 직접 판매하고 치매어르신은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틀려도 괜찮아, 안심시장’ 운영

<서울 강서구의 인지건강 디자인 사례>



[자료 : 한국경제(2022.08.01. 기사)]

<서울 강서구의 안심시장 사례>



[자료 : 서울특별시(2022.07.07. 기사)]

- 서울 서초구는 전국 최초 치매환자 맞춤형 모델하우스인 ‘치매안심 하우스’ 조성
 - ⇒ ‘치매안심 하우스’는 81.55m²(약 24.6평) 규모로 치매환자의 안전성 및 편리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디자인으로 구성
 - ⇒ 유튜브를 통해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정 교육을 수료한 지역주민인 ‘안심 큐레이터’와 전문가(간호사·사회복지사 등)가 직접 안내

<서초구 치매안심 하우스 사례>



[자료 : 서초구치매안심센터 유튜브]



[자료 : 경향신문(2022.07.28. 기사)]

[5] 수원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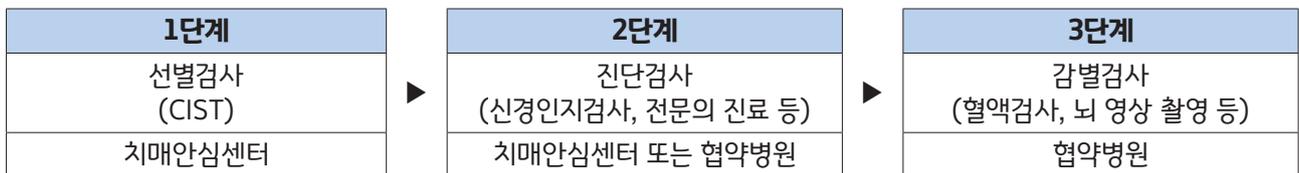
□ 치매안심센터 운영 실태

- 수원시의 치매안심센터는 4개 구 보건소에서 직영으로 운영
⇒ 영통구(2016년 5월), 장안구(2018년 10월), 팔달구(2019년 6월), 권선구(2019년 7월) 개소
-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노인 및 가족, 시민을 위하여 치매조기검진·치매환자·등록관리·치매가족 지원·치매예방서비스 및 치매친화적 지역사회 서비스 등 시행

□ 치매조기검진서비스

- 치매 및 치매고위험 노인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계별로는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로 구분

<치매조기검진사업>



□ 치매환자서비스

- 치매환자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맞춤형 사례관리, 배회가능어르신 인식표 서비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서비스, 조호물품 제공/대여 서비스, 치매환자쉼터 서비스 제공
⇒ 사례관리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중 돌봄사각지대(독거 치매환자, 부부 치매환자, 치매로 인해 복합적인 문제가 동반된 자 등)에게 관련 서비스 제공 및 연계
⇒ 만 60세 이상 치매어르신 중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어르신의 치매 치료비(약제비 및 진료비)를 월 최대 30,000원까지 실비 지원
⇒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위생소모품)을 최대 1년까지 제공
⇒ 경도치매환자가 장기요양서비스 등의 국가치매지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돌봄 및 보호를 제공하는 서비스인 치매환자쉼터 운영

□ 치매가족서비스

- 치매가족을 위해서는 1:1 대면상담과 돌봄부담분석 결과를 통해 치매환자 가족(보호자)의 어려움과 돌봄 부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경감시킬 수 있는 서비스(상담, 정보제공 등) 연계

□ 치매예방 및 등록관리 서비스

- 치매예방에 관심있는 지역주민이나 치매조기검진 결과 치매 고위험군에게 인지훈련 프로그램이나 치매 예방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는 '치매예방 서비스' 진행
-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 고위험군(경도인지장애, 인지저하 등)으로 진단받은 경우 적절한 인지훈련을 통해 치매 발병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발병 시기를 늦출 수 있도록 인지훈련 프로그램 제공

[6] 수원시 치매정책의 방향성

□ 예방과 조기발견의 강화

- (필요성) 치매 조기발견 및 치료를 시행할 경우 8년간 7,800시간, 6,400만원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5년 후 요양시설 입소율 55% 감소¹⁰⁾
- (방향성)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 및 소통창구 다변화를 통해 접근성 강화
 - ⇒ 치매안심센터를 인식하여 관련 검사 및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홍보 방법 다변화 필요 (새빛톡톡 내 홍보뿐만 아니라 이용자 중심의 홍보방법 강구 필요)
 - ⇒ 지역사회 내 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하여 조기검사율 향상
- (대상 확대) 초로기 치매(45~50세) 환자에 대한 선도적 개입 필요
 - ⇒ 2023년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 만 65세 이전에 발병하는 치매(초로기)환자는 2020년 경기도 치매 환자의 10.4%(1만8천279만명) 수준, 계속적 증가 추세
 - ⇒ 초로기 치매의 경우 노인성 치매보다 뇌 손상 진행 속도가 빠르고 사회적으로 경제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발병해 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사회적 부담이 큼에도 불구하고 현재 치매안심센터는 노인성 치매 환자와 가족에 맞춰져 있어 조기 발병 치매 환자에 대한 돌봄 사각지대 발생

□ 치매환자와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치매친화도시 조성’

- (필요성) ① 수원시는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3개 친화(아동·여성·고령)인증도시로 모든 세대가 건강하고 활력 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의 정책적 가치 지향, ② 정책 패러다임은 지역사회 돌봄과 거주로 전환
- (방향성)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 및 소통창구 다변화를 통해 접근성 강화
 - ⇒ 지역사회 내 물리적 환경 조성(단계적으로 치매환자가 많이 거주하는 동네나 일부 거리를 dementia-friendly communities로 조성/단계적 확대)
 - ⇒ 영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일부 환경개선비 지원), 10가지 주요 요소(인식 제고, 치매노인 참여 등), 치매 친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8개 분야의 단계적 적용
 - ⇒ 고령친화도시, 수원새빛돌봄, 스마트도시 등과 연계한 지역특성형 치매친화도시 조성

□ Aging In Place^(AIP)를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강화

- (필요성) 치매정책은 현재 보건소에서 직영하는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AIP를 위해서는 환경조성(주거환경 및 지역사회 환경), 의료, 돌봄서비스 등 삶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의 연계가 필수
- (방향성) 지역사회 내 치매환자 및 가족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
 - ⇒ 통합지원체계의 영역은 보건-의료-복지-주거-돌봄-상담서비스로 구성
 - ⇒ 수원시장기요양지원센터와 치매안심센터와의 연계 체계 확대
 - ⇒ 의심과정부터 진단, 정보제공, 서비스 연계까지의 통합전달체계 구축

10)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2014. 치매가이드북.